

# 행복플로리시 관점에서 직장여성의 일의 심리학이론(PWT)의 적용

여수형\*

김현아\*\*

서울사이버대학교

본 연구는 일의 심리학 이론에 있어서 직장여성의 행복플로리시의 적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의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와 행복플로리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일 자유의지와 행복플로리시의 이중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3년 이상의 일 경험이 있는 직장여성 205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사회계층, 객관적 사회계층, 일 자유의지, 행복플로리시, 괜찮은 일을 설문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9.0과 PROCESS Macro v4.2를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일 자유의지는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으며, 객관적 및 주관적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의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는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행복플로리시는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고, 객관적 및 주관적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의 관계도 완전 매개하였다. 사회계층이 괜찮은 일로 가는 경로는 일 자유의지와 행복플로리시가 이중 매개하였는데, 행복플로리시는 일 자유의지와 괜찮은 일 사이의 경로를 완전 매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추후 연구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직장여성, 일의 심리학(PWT), 사회계층, 괜찮은 일, 일 자유의지, 행복플로리시

---

본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함.

\* 주저자: 여수형/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E-mail: suhyung.yeo@gmail.com

\*\* 공동저자: 김현아/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Tel: 02-944-5025/E-mail: haha6082@iscu.ac.kr

## I. 서론

일이란 생계유지, 사회적 연결, 자아실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생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안진아, 2019). 일자리의 질과 관련하여 UN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서는 고용의 질을 높여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위해 1999년 ‘괜찮은 일(decent work)’이라는 국제적인 개념을 제안하였다(ILO, 2013). ILO에서 정의한 ‘괜찮은 일’은 생산적이고 공평한 수입을 제공하는 직업 기회, 직장에서의 안전, 가족을 위한 사회적 보호, 자기 계발 및 사회 통합에 대한 더 나은 전망, 사람들이 자신의 걱정을 표현할 수 있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등을 포함한다(Rantanen, 2020). 최근 제시된 Duffy와 Autin 및 Douglass (2016)의 일의 심리학 이론(Psychology of Working Theory, 이하 PWT)은 환경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괜찮은 일을 얻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일의 심리학 이론은 그동안 진로 이론에서 다루어지지 않거나, 부수적 요인으로만 고려되었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반영하여 개인의 내, 외부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중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고용 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이후 8개 분기 연속으로 여성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박비곤, 202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짐과 함께 여성 일자리의 질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2020년 기준, 31.5%로 OECD국 중 그 격차가 가장 크다(신종각 등, 2021). 남녀 임금 차이는 여성과 남성의 직업적 분리와 직장 내 수직적 분리, 여성 집중 산업 노동의 과소평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정경윤, 2022), 이는 여성이 자신의 일에 대해 하는 평가와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여성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직무만족은 이직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수진, 2018). 따라서 여성이 스스로 만족할 만한 일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성들이 자신의 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이 주관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직장여성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개입되는 요소는 단순히 직장에서의 일 뿐만은 아니며, 직장 내에서 경험하는 정서 또한 영향을 미친다. 국내 직장여성 관련 연구 동향 분석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뿐 아니라, 우울,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스트레스, 정신건강 등의 키워드 또한 중심을 이루고 있다(임정연, 윤지영, 2018). 또한, 직장남성과 직장여성이 ‘일’에 대해 경험하는 정서는 다르다. 장재윤 등(2007)에 따르면, 직장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행복한’, ‘애정이 있는/우호적인’, ‘편안한/이완된’의 정적 정서나,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린’과 같은 부정 정서를 더 많이 느끼는 반면, ‘짜증나는/화가 나는’, ‘피곤한’의 부정 정서는 남성에게 비해 유의미하게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업주부나 직장남성에 비해 ‘자녀 돌보기’, ‘집안일’ 등에 대해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했다. 여성 직장인들의 직장생활에 정서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녀들이 느끼는 정서는 직장남성이나 전업주부와는 다르다. 이렇듯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여성은 자신들이 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느끼는 정서 또한 달라 여성의 직장생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는 직장남성의 그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직장여성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괜찮은 일과 일과 관련된 정서에 관한 연구는 필요하다. 반면, 지금까지의 연구는 여성의 괜찮은 일 경험을 스트레스 등의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만 국한 시키거나(이다현 2013), 고용률 등의 구조적 요인(신종각 외, 2021)에만 국한시킴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여

성 진로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직장여성이 환경적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괜찮다고 느끼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을 일의 심리학 이론(PWT)을 기초로 연구하고자 한다. PWT는 경제적 제약이나 사회적 소외와 같은 외적인 제약이 괜찮은 일의 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괜찮은 일을 가지는데 어떤 심리적 요인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이론(이슬아 등, 2023)으로 상대적 및 경제적 약자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의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PWT와 관련하여 Duffy 등(2016)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괜찮은 일을 가지는데 주요하다고 보았다. 사회계층의 개념은 소득, 교육 수준, 직업과 같은 객관적 지표로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는 객관적 사회계층과 개인이 사회경제적 위치 및 수준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 인식을 주관적 사회계층으로 정의한다(Kraus, Piff & Keltner, 2009). 변상우(2018)는 객관적 사회계층과 주관적 사회계층을 함께 측정하면 한 개인의 사회계층을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편, 사회계층 관련 기존 연구들은 사회계층 측정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위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강조한 연구들(안진아, 2019; 정세기, 2021)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사회계층에 대한 개념을 제한하여 해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사회계층과 객관적 사회계층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PWT 모형이 제시된 후,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England, Duffy, Genesmer, Kim, Buyukgoze-Kavas & Larson, 2020; Kim, Kim, Duffy, Nguyen. & Wang, 2020), 국내에서도 PWT의 모형의 검증 연구 및 변인 간의 매개효과나 조절효과 등을 살펴보는 연구가 활발한 추세이다(김나래 등, 2020; 안진아, 2019; 이세란, 이기학, 2021). 한국 사회에서 사회계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한 바(유계숙, 양다연, 정백, 2019), 한국인

을 위한 진로상담 이론에서는 맥락적 원인을 고려한 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최근의 괜찮은 일 관련 연구 동향 분석(정다빈, 2022)에 따르면, 연구대상은 20~30대 청년층이 가장 많았으며, 주로 괜찮은 일을 종속변인으로 사회적 주변화, 경제적 어려움, 사회계층, 학벌에 따른 지각된 제약을 독립변인으로, 일 자유의지, 주도적 성격, 진로를 매개변인으로 검증 연구들이 많았다. 여성 직장인 대상의 괜찮은 일 관련 연구로는 여성 상담자의 괜찮은 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김원아, 2021), 상담자는 특수직으로 고용 형태 및 근무지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여성 상담자가 여성 직장인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직장인의 괜찮은 일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위해서 직장여성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 형태나 근무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괜찮은 일 획득에서의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를 보면 여성은 일 자유의지가 경제적 제약과 괜찮은 일 사이를 매개하였고, 남성은 진로 적응성이 경제적 제약과 괜찮은 일 사이를 매개하였다(이슬아 등, 2023).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여성 직장인과 괜찮은 일과 관련한 연구는 성차별 위주였고(이세란, 이기학, 2021),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구들도 주관적 사회계층(안진아, 2019; 정세기, 2021)이나 경제적 제약(안진아, 2019)에 대한 인식만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 자유의지 및 주관적 사회계층과 객관적 사회계층이 괜찮은 일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PWT 연구에서 경제적 제약과 괜찮은 일 사이에서 유의미한 매개변인으로 지목된 일 자유의지와 더불어 행복플로리시의 기능에 집중하고자 한다. 행복플로리시는 최근 긍정 심리학에서 강조되는 행복의 주관적 경험을 토대로 한 변인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긍정 심리자본은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을 가장 유의하게 설명한 변인으로 나타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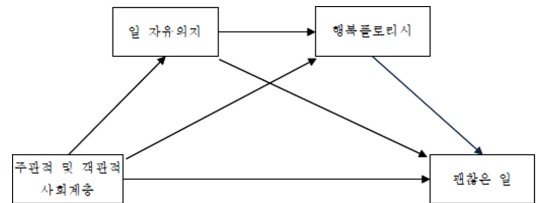
다(김자숙, 2022). 여성 직장인이 사회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일이라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웰빙, 삶의 만족도, 행복과 같은 긍정심리학적 개념을 적용하면, 직장여성의 다차원적인 행복 증진이 괜찮은 일로 이행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일의 심리학의 결과 변인으로서 삶의 만족을 종속 변인으로 본 선행연구들(이세란, 2019; 정세기, 2021)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행복플로리시를 과정 변인으로 보고 괜찮은 일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새롭게 검증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괜찮은 일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긍정 심리학적 요소는 중요하며, 행복감은 인간의 자율적인 훈련으로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여성 직장인들이 사회계층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일이라고 인식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검증된 일 자유의지라는 인지적 요인과 함께 행복플로리시라는 긍정 심리학적 정서 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행복플로리시가 여성 고용의 질을 어떻게 완충할 수 있는지 검증함으로써 최근 강조되고 있는 긍정 심리학에 기초한 여성 진로상담의 이론적 모형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일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생각하는 삶에 만족을 주는 괜찮은 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서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고, 연구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첫째, 일 자유의지는 직장여성의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과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일 자유의지의 매개효과는 주관적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의 관계 및 객관적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의 관계에서도 유효할 것인가?

둘째, 행복플로리시는 직장여성의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과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행복플로리시의 매개효과는 주관적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의 관계 및 객관적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의 관계에서도 유효할 것인가?

셋째, 직장여성의 사회계층이 괜찮은 일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 자유의지와 행복플로리시의 이중 매개효과가 있는가?



[그림 1] 연구 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승인 번호: AN01-202312-HR-001). 전국의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2024년 1월에 경력 3년 이상의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편의 표본 추출 방법으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 진행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설문 참여할 수 있도록 링크를 송부하였으며, 설문지가 포함된 링크에는 설문을 진행하기 전, 참가자들은 연구의 목적, 참여 대상, 참여 절차 및 방법과 설문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에 대한 안내문을 제시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설문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206명이 설문 참여하였으며, 해당이 되지 않는 1명을 제외하고, 20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205명의 자료는 여성이 205명(100%)으로, 연령 범위는 25~59세로 평균연령은 45.46세( $SD=8.74$ )였다. 평균 경력은 13.57년( $SD=5.37$ )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이하 41명(20%), 전문대학 졸업 50명(24%), 대학 졸업 86명(42%), 석·박사 이상 28명(14%)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고용 형태는 상용근로자가 141명(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시근로자 28명(14%),

일용근로자 28명(14%), 그리고 자영업자 8명(4%)으로 나타났다. 월급은 150만 원 이하인 경우 7명(3%), 160~250만 원은 82명(40%), 260~350만 원은 53명(26%), 360~450만 원 23명(11%), 그리고 460만 원 이상이 40명(20%)으로 나타났다.

## 2. 측정 도구

### 사회계층 척도

변상우(2018)의 사회계층 연구에 근거하여 객관적 사회계층은 사회경제적 지위(SES)-‘개인의 소득, 학력, 직업으로 측정’과 주관적 사회계층 지표-‘개인의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주관적 사회계층 측정을 위해 Duffy 등(2017)이 개발한 경제적 제약 척도(Economic Constrains Scale; ECS)를 안진아(2020)가 번안한 것을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다. ECS는 7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5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적 제약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의 삶 대부분 동안 나는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가 있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6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사회계층은 월 소득, 학력 수준, 고용 형태로 측정하였는데, 월 소득과 학력 수준은 정은의와 노안영(2007)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측정을 참고하였고, 고용 형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사용하고 있는(이지은, 2020) 고용 형태 분류를 사용하여 자영업자(4점), 상용근로자(3점), 임시근로자(2점), 일용근로자(1점)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계층은 주관적 사회계층과 객관적 사회계층을 통합하여 사회계층을 측정하기 위하여 ECS를 역채점한 총점과 월 소득, 학력 수준, 고용 형태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계층이 높음을 의미한다.

### 일 자유의지 척도

Duffy 등(2017)이 개발하고, 김민선(2020)이 타당화 한 일 자유의지 척도(Work Volition Scale: WVS)를 사용하였다. WVS는 7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지 4문항, 경제적 제약 3문항, 구조적 제약 4문항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지의 문항 예시는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다”가 있고, 경제적 제약의 문항 예시는 “나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나는 종종 내가 즐기지 않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가 있으며, 구조적 제약의 예시는 “나의 개인적인 통제력 밖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현재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가 있다. WVS의 점수가 높을수록 외부적 장벽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지함을 의미한다. 문항 중 ‘경제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에 해당하는 7문항은 역채점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일 자유의지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76으로 나타났다.

### 행복플로리시 척도

Butler와 Kern(2016)이 전 세계 여러 나라의 18세 미만 청소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이르기까지 약 4만 명의 자료로 개발 및 타당화 한 PERMA를 심교린과 김완석(2019)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5개의 핵심 문항으로 긍정 정서(Positive emotion) 3문항, 몰입(Engagement) 3문항, 관계(Relationship) 3문항, 의미(Meaning) 3문항, 성취(Accomplishment)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정서의 문항 예시는 “전반적으로 얼마나 자주 즐겁다고 느끼니까?”이고, 몰입의 문항 예시는 “얼마나 자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합니까?”이다. 관계의 문항 예시는 “당신이 필요할 때, 타인으로부터 도움이나 지지를 얼마나 받습니까?”이며, 의미의 문항 예시는 “전반적으로 얼마나 목적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까?”이다. 성취의 문항 예시는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느낍니까?”이다. 각 문항은 10점 Likert 척도(1: 전혀아니다, 10: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플로리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6으로 나타났다.

### 괜찮은 일 척도

Duffy 등(2017)이 개발한 괜찮은 일 척도(Decent Work Scale; DWS)를 Nam과 Kim(2019)이 변안한 K-DWS를 사용하였다. DWS는 7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신체적, 관계적으로 안전한 직무 환경, 건강관리 지원, 적절한 보상, 자유시간과 휴식의 보장,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에 상응하는 조직 가치, 5개의 하위요인이 각 3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낀다”, “나는 양질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나는 나의 일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업무 외의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내가 속해있는 조직의 가치는 나의 가족의 가치관과 부합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일을 괜찮은 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식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4로 나타났다.

###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version 29.0.2.0)와 SPSS PROCESS Macro v4.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 척도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둘째, 각 변인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최솟값과 최댓값,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

하였다. 셋째, 연구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넷째,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의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와 행복플로리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Hayes(2013)가 제시한 SPSS PROCESS Macro v4.2 프로그램의 model 4번 경로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때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5,000회, 신뢰구간 95%로 설정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의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와 행복플로리시의 이중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Hayes와 Andrew(2018)가 제시한 SPSS PROCESS Macro v4.2 프로그램의 model 6번 경로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때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5,000회, 신뢰구간 95%로 설정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 값과 상관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인은 왜도의 절댓값이 2 미만, 첨도 7 미만으로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Kline, 2011)을 확인하였다.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회계층은 일 자유의지, 행복플로리시, 괜찮은 일과 유의한 정적 상관( $r = .297 \sim .408, p < .01$ )을 나타내었는데, 사회계층의 하위요인인 주관적 사회계층과 일 자유의지, 행복플로리시, 괜찮은 일( $r = .280 \sim .491, p < .01$ ), 객관적 사회계층 일 자유의지, 행복플로리시, 괜찮은 일( $r = .201 \sim .318, p < .01$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일 자유의지 또한 행복플로리시, 괜찮은 일과 정적 상관( $r = .292 \sim .368, p < .01$ ), 행복플로리시는 괜찮은 일( $r = .511, p < .01$ )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1> 주요 변인들간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N=205]

	1	1-1	1-2	2	3	4
1. 사회계층	-					
1-1. 주관적 사회계층	.971**	-				
1-2. 객관적 사회계층	.565**	.352**	-			
2. 일 자유의지	.489**	.491**	.221**	-		
3. 행복플로리시	.391**	.351**	.318**	.368**	-	
4. 괜찮은 일	.298**	.280**	.201**	.292**	.511**	-
평균(M)	30.57	25.02	5.55	46.65	32.48	67.09
표준편차(SD)	7.1	6.26	1.81	10.2	7.61	13.51
왜도	-0.21	-0.44	0.23	-0.44	0.16	-0.03
첨도	-0.46	-0.34	-0.86	0.34	0.51	-0.61

\*\*  $p < .01$ , \*  $p < .05$

경로	$\beta$	SE	t
객관적 사회계층 → 일 자유의지	.221	.386	3.234**
일 자유의지 → 괜찮은 일	.260	.090	3.816***

\*\*\*  $p < .001$ , \*\*  $p < .01$ , \*  $p < .05$

## 2. 모형분석

###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의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의 매개효과 검증

Hayes(2013)가 제시한 SPSS Macro 4.2의 Model 4를 사용하여 매개 모형분석을 시행하여 직장여성의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의 관계에서 각각 일 자유의지와 행복플로리시의 매개효과가 유의하는지 살펴 보았다. 사회계층은 괜찮은 일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beta = .203, p < .01$ ), 매개변인인 일 자유의지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eta = .489, p < .001$ ). 일 자유의지는 괜찮은 일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였다( $\beta = .193, p < .05$ ). 마지막으로 일 자유의지가 종속 변인인 괜찮은 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된 이후 사회계층이 괜찮은 일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 $\beta = .298, p < .001$ ). 사회계층이 일 자유의지의 매개

를 통해 미치는 간접 효과는 .179이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5,000회를 실시하여 얻은 유의성 검증의 결과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로써 일 자유의지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일 자유의지의 매개효과는 주관적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 그리고 객관적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 사이에서도 유효함이 검증되었다. 결과는 <표 2>, <표 3>,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2>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의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	$\beta$	SE	t
사회계층 → 일 자유의지	.489	.088	7.991***
일 자유의지 → 괜찮은 일	.193	.100	2.542*

\*\*\*  $p < .001$ , \*\*  $p < .01$ , \*  $p < .05$

경로	Effect	Boot S.E.	95% CI	
			LLCI	ULCI
사회계층 → 일 자유의지 → 괜찮은 일	.179	.084	.019	.353

LLCI: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신뢰구간 내 상한값

<표 3> 주관적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의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	$\beta$	SE	t
주관적 사회계층 → 일 자유의지	.491	.100	8.029***
일 자유의지 → 괜찮은 일	.204	.101	2.678**

\*\*\*  $p < .001$ , \*\*  $p < .01$ , \*  $p < .05$

경로	Effect	Boot S.E.	95% CI	
			LLCI	ULCI
주관적 사회계층 → 일 자유의지 → 괜찮은 일	.216	.093	.044	.406

LLCI: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신뢰구간 내 상한값

<표 4> 객관적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의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	$\beta$	SE	t
객관적 사회계층 → 일 자유의지	.221	.386	3.234**
일 자유의지 → 괜찮은 일	.260	.090	3.816***

\*\*\*  $p < .001$ , \*\*  $p < .01$ , \*  $p < .05$

경로	Effect	Boot S.E.	95% CI	
			LLCI	ULCI
객관적 사회계층 → 일 자유의지 → 괜찮은 일	.431	.192	.128	.873

LLCI: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신뢰구간 내 상한값

###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의 관계에서 행복플로리시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계층이 행복플로리시의 매개를 통해 괜찮은 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계층은 괜찮은 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15$ ,  $p = .078$ ), 행복플로리시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eta = .391$ ,  $p < .001$ ). 행복플로리시는 괜찮은 일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였다( $\beta = .466$ ,  $p < .001$ ). 이는 행복플로리시가 높을수록 괜찮은 일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인 행복플로리시가 괜찮은 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된 이후 사회계층이 괜찮은 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 $\beta = .298$ ,  $p < .001$ ). 사회계층이 행복플로리시의 매개를 통해 미치는 간접 효과는 .347이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5,000회를 실시하여 얻은 유의성 검증의 결과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로써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 간의 관계를 행복플로리시의 완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행복플로리시의 매개효과는 주관적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의 관계와 객관적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의 관계에서도 검증되었다. 결과는 <표 5>, <표 6>,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5>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의 관계에서 행복플로리시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	$\beta$	SE	t
사회계층 → 행복플로리시	.391	.069	6.047***
행복플로리시 → 괜찮은 일	.466	.116	7.154***

\*\*\*  $p < .001$ , \*\*  $p < .01$ , \*  $p < .05$

경로	Effect	Boot S.E.	95% CI	
			LLCI	ULCI
사회계층 → 행복플로리시 → 괜찮은 일	.347	.083	.195	.524

LLCI: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신뢰구간 내 상한값

<표 6> 주관적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의 관계에서 행복플로리시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	$\beta$	SE	t
주관적 사회계층 → 행복플로리시	.351	.080	5.346***
행복플로리시 → 괜찮은 일	.471	.114	7.356***

\*\*\*  $p < .001$ , \*\*  $p < .01$ , \*  $p < .05$

경로	Effect	Boot S.E.	95% CI	
			LLCI	ULCI
주관적 사회계층 → 행복플로리시 → 괜찮은 일	.357	.091	.186	.550

LLCI: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신뢰구간 내 상한값

<표 7> 객관적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의 관계에서 행복플로리시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	$\beta$	SE	t
객관적 사회계층 → 행복플로리시	.318	.280	4.780***
행복플로리시 → 괜찮은 일	.498	.113	7.816***

\*\*\*  $p < .001$ , \*\*  $p < .01$ , \*  $p < .05$

경로	Effect	Boot S.E.	95% CI	
			LLCI	ULCI
객관적 사회계층 → 행복플로리시 → 괜찮은 일	1.184	.311	.619	1.856

LLCI: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신뢰구간 내 상한값



**사회계층과 팬찮은 일의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와 행복플로리시의 이중 매개효과 검증**

사회계층과 팬찮은 일에서 일 자유의지와 행복플로리시가 이중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Heyes와 Andrew(2018)가 제시한 SPSS PROCESS Macro v4.2 프로그램의 model 6번 경로 모형을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5,000회, 신뢰구간 95%로 설정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회계층은 팬찮은 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79, p = .266$ ), 일 자유의지 또한 팬찮은 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88, p = .212$ ). 반면 사회계층은 행복플로리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277, p < .001$ ), 행복플로리시는 팬찮은 일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48, p < .001$ ). 일 자유의지 또한 행복플로리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 = .233, p < .01$ ). 사회계층은 일 자유의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89, p < .001$ ). 즉, 사회계층이 매개변인인 일 자유의지와 행복플로리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일 자유의지는 행복플로리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행복플로리시는 팬찮은 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사회계층과 팬찮은 일의 관계를 일 자유의지와 행복플로리시가 이중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5,000회를 실시하여 얻은 사회계층과 팬찮은 일의 관계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일 자유의지와 행복플로리시가 투입되면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전체 간접 효과는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하였는데, 이로써 사회계층이 팬찮은 일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 자유의지와 행복플로리시의 간접 효과, 즉 완전 이중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사회계층과 팬찮은 일의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와 행복플로리시는 각각 매개하는지를 분석한 결

과, 첫 번째 경로인 사회계층이 일 자유의지를 매개로 팬찮은 일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두 번째 경로인 사회계층이 행복플로리시를 매개로 팬찮은 일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계층이 행복플로리시를 매개로 팬찮은 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계층이 일 자유의지와 행복플로리시를 차례로 거쳐 팬찮은 일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봤을 때,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계층은 팬찮은 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일 자유의지와 행복플로리시를 통해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일 자유의지와 행복플로리시의 이중 매개효과는 주관적 사회계층과 팬찮은 일 그리고 객관적 사회계층과 팬찮은 일 사이에서도 유효함이 검증되었다. 결과는 <표 8>, <표 9>,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8> 사회계층과 팬찮은 일의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와 행복플로리시의 이중 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	$\beta$	SE	t
사회계층 → 일 자유의지	.489	.088	7.991***
사회계층 → 행복플로리시	.277	.078	3.819***
사회계층 → 팬찮은 일	.079	.135	1.115
일 자유의지 → 행복플로리시	.233	.054	3.219**
일 자유의지 → 팬찮은 일	.088	.093	1.253
행복플로리시 → 팬찮은 일	.448	.119	6.711***

\*\*\*  $p < .001$ , \*\*  $p < .01$ , \*  $p < .05$

경로	Effect	Boot S.E.	95% CI	
			LLCI	ULCI
사회계층 → 일 자유의지 → 팬찮은 일	.082	.081	-.081	.239
사회계층 → 행복플로리시 → 팬찮은 일	.236	.078	.092	.402

경로	Effect	Boot S.E.	95% CI	
			LLCI	ULCI
사회계층 → 일 자유의지 → 행복플로리시 → 팬찮은 일	.097	.040	.029	.184

LLCI: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신뢰구간 내 상한값

<표 9> 주관적 사회계층과 팬찮은 일의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와 행복플로리시의 이중 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	β	SE	t
주관적 사회계층 → 일 자유의지	.491	.100	8.029***
주관적 사회계층 → 행복플로리시	.224	.089	3.059**
주관적 사회계층 → 팬찮은 일	.078	.152	1.107
일 자유의지 → 행복플로리시	.258	.055	3.519**
일 자유의지 → 팬찮은 일	.087	.094	1.234
행복플로리시 → 팬찮은 일	.452	.117	6.853***

\*\*\*  $p < .001$ , \*\*  $p < .01$ , \*  $p < .05$

경로	Effect	Boot S.E.	95% CI	
			LLCI	ULCI
주관적 사회계층 → 일 자유의지 → 팬찮은 일	.093	.094	-.095	.275
주관적 사회계층 → 행복플로리시 → 팬찮은 일	.219	.085	.059	.390
주관적 사회계층 → 일 자유의지 → 행복플로리시 → 팬찮은 일	.435	.120	.201	.673

LLCI: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신뢰구간 내 상한값

<표 10> 객관적 사회계층과 팬찮은 일의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와 행복플로리시의 이중 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	β	SE	t
객관적 사회계층 → 일 자유의지	.221	.386	3.234***
객관적 사회계층 → 행복플로리시	.249	.272	3.841**
객관적 사회계층 → 팬찮은 일	.029	.477	.450
일 자유의지 → 행복플로리시	.313	.048	4.841***
일 자유의지 → 팬찮은 일	.117	.086	1.791
행복플로리시 → 팬찮은 일	.459	.119	6.862***

\*\*\*  $p < .001$ , \*\*  $p < .01$ , \*  $p < .05$

경로	Effect	Boot S.E.	95% CI	
			LLCI	ULCI
객관적 사회계층 → 일 자유의지 → 팬찮은 일	.193	.149	-.052	.528
객관적 사회계층 → 행복플로리시 → 팬찮은 일	.854	.268	.380	1.442
객관적 사회계층 → 일 자유의지 → 행복플로리시 → 팬찮은 일	.238	.099	.080	.466

LLCI: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신뢰구간 내 상한값

#### IV. 논의

본 연구는 PWT 이론 모형을 적용하여 일 경험이 있는 여성의 사회계층과 팬찮은 일의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 및 행복플로리시의 매개효과와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계층을 그 하위요인인 주관적 사회계층과 객관적 사회계층으로 구분하여 팬찮은 일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 자유의지 및 행복플로리시가 각각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계층과 팬찮은 일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와 행복플로리시가 이중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계층이 팬찮은 일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 자유의지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주관적 사회계층과 객관적 사회계층과 팬찮은 일의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가 부분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 경제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서 일 의미 지각, 소명 수행, 일을 생계유지 이상의 자기실현 수단으로 삼는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안진아, 2019).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자신의 일을 생계유지 수단 이상으로 보며, 자기실현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주변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려는 의지가 높아지는 것이다. 객관적 사회계층이 높다는 것은 본인이 활용

할 경제적 자원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이 가진 경제적 자원을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 등에 더 투자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사회계층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변의 제약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경민과 이기학(2018)의 연구에 따르면 외적 진로장벽(예; 학벌, 경제 사정, 주변의 반대 등)에 대한 지각이 진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스스로 주체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독립적 자기관은 진로 결정 자율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외적 진로장벽 수준이 높을 경우 이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자율성이 높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외적 장벽에 대한 지각이 높아지면 진로 선택에서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워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괜찮은 일 획득 과정에서 여성의 일 자유의지가 경제적 제약과 괜찮은 일 사이를 매개한다는 선행연구(이슬아 등, 2023) 비추어 볼 때, 여성의 경우는 스스로 사회계층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이 진로 선택의 자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신의 일 경험을 바탕으로 원하는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향후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을 시사해 주었다.

둘째,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의 관계에서 행복플로리시의 완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행복플로리시는 주관적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 및 객관적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 사이를 완전 매개하였다.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박성희, 이정은, 2021). 최가희(2021)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사회계층 군집이 정신적 웰빙, 적극적 대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계층이 높거나, 높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직장여성들은 삶의 만족이나 웰빙의 정서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행복플로리시가 높으면 본인의 일을 괜찮은 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신적 웰빙 점수가 높으면 직업적 변인들에서

높은 만족도와 참여도를 보였다는 연구(서형준, 2012)와 부합한다. 본 연구를 통해 행복플로리시 관점에서 일의 심리학 이론을 도입해 볼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셋째,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의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와 행복플로리시의 완전 이중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주관적 사회계층이나 객관적 사회계층에서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사회계층이 높거나, 높다고 인식하는 직장여성들은 일 자유의지가 높고, 행복플로리시의 정서를 경험하여 자신의 일을 괜찮은 일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일 자유의지가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사회적 상황이나 경제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구와 일치하는 진로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 수준이 높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하여 소명 의식과 삶의 만족을 완전 매개한다(오소진, 2021)는 연구와도 일부 부합한다. 직장인의 일 자유의지가 일의 의미에 중단적 영향을 미친다는 김나래와 이기학(2019)의 연구 결과와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새롭게 도출된 개념은 일의 심리학 이론에서 행복감의 요소는 일의 의미 이외에 긍정 정서, 관계, 성취도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또한, 일 자유의지가 괜찮은 일로 가는 경로에서도 행복플로리시의 완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일 자유의지가 직무, 삶의 만족을 정적으로 예측하며, 일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수록 자신의 직무와 삶에서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이세란, 2019)는 연구와 일부 부합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행복플로리시는 고정된 개념은 아니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거나 현실에서 자기수용으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강화되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활발한 대인관계 형성을 통해 강화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이재무와 조정서, 2022)고 했다. 이는 행복플로리시를 통해 원활하게 자기에게 요구된 사회적 기능을 소화해 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플로리시의 가장 큰 효과는 관계된 요인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긍정적 순환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직무 수행 전 플로리시가 충만할수록 주도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직무 행동이 가능해진다고 했다(장영숙 2017). 즉, 일 자유의지는 이러한 행복플로리시의 정서를 매개로 본인의 일을 괜찮은 일로 지각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직장여성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복플로리시의 역할을 새롭게 밝혔다. 즉, 직장여성 고용의 질은 주관적 및 객관적 사회계층을 높이면서 일 자유의지와 행복플로리시를 높일 때 괜찮은 일로 이행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이론적 함의는 직장여성이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행복플로리시라는 최근의 긍정 심리학적 모델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실천적 함의는 직장여성의 괜찮은 일을 모색하려면 직장 내 행복플로리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차원적인 행복 증진을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직장여성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편의 표본 추출 방법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으므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군집표본 추출 방법이나 층화 표본 추출 방법과 같은 확률 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 경험이 3년 이상인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후속 연구로 행복플로리시의 역할이 청년층이나 비직장인을 대상으로도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20~30대에서는 일 자유의지가 사회계층과 괜찮은 일을 완전 매개함으로 나타났는데(최윤지, 2022), 본 연구의 평균연령이 40대이니만큼, 선행연구와 삶의 발달기에 주어지는 과업이나 연령에 따른 괜찮은 일에 매개하는 행복플로리시의 영향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PWT의 변인 중 사회계층과 일 자유의지, 괜찮은 일을 선정하여 행복플로리시와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더불어, 대학생의 성

격강점이 삶의 만족도나 교우관계 만족도나 진로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바(김지영, 2014), PWT에서 성격강점 요인의 영향을 후속 연구로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김나래, 노혜연, 박기산, 이기학 (2020). 대학생의 사회부와 완벽주의, 사회적지지, 일 자유의지와 진로 만족의 관계: 매개된 조절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상담 및 심리치료, 32(1), 391-415.
- 김민선 (2020). 직업인용 일 자유의지 척도 타당화 연구. 직업 교육 연구, 39(5), 1-21.
- 김민정 (2016). 영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행복플로리시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김원아 (2021). 상담자의 괜찮은 일(Decent Work)에 대한 여성 상담자의 인식: 개념도 방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자숙 (2022). 직장 중년여성의 긍정심리 자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예측 요인.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31(3), 114-124.
- 김지영 (2014). 대학생의 성격강점 :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미래사회, 5(1), 79-95.
- 박수진 (2018). 일의 의미가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세대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박비곤 (2023). 주요 고용 동향. 한국고용정보원, 계간 고용 이슈 불호, 112-122.
- 박성희, 이정은 (2021). 소득계층별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삶의 만족도 차이. 인문사회 21, 12(3), 2121-2136.
- 변상우 (2018). 사회계층에 대한 재조명\_심리학에서 개념화 및 측정의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문화 및 사회문제, 24(1), 101-130.

- 서형준 (2012). 긍정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정신건강이 직업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종각, 최강식, 이승렬, 이상돈, 최숙희, 이덕재, 고재성, 이준상, 조민수 (2021). 한국의 고용구조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 고용 정보원.
- 심교린, 김완석 (2019). 한국판 플로리시 척도 (K-PERMA) 타당화 연구. 한국 예술 심리치료 학회 예술 심리치료연구, 15(4), 319-340.
- 안진아 (2019). 사회계층 및 학벌에 따른 제약과 관찮은 일간 관계: 일 자유의지와 진로 적응성의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20(5), 139-140.
- 안진아 (2020). 직장인의 경제적 제약, 소명 수행, 직무만족 간 관계: 일 자유의지와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20(5), 133-153.
- 오소진 (2021). 직장인의 소명 의식과 삶의 만족 관계: 일 자유의지와 소명 수행의 매개효과.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유계숙, 양다연, 정백 (2019).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이 상대적 박탈감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수저 담론 기반 귀속 의식의 실증 분석 연구. 대한가정학회, 57(3), 329-340.
- 이다현 (2013). 직장인 스트레스 분석: 대기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세란, 이기학 (2021). 직장여성의 성차별 경험과 직무 및 삶의 만족의 구조 관계: '일 자유의지'와 '관찮은 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1), 539-560.
- 이세란 (2019). 직장여성의 성차별 경험과 직무 및 삶의 만족의 구조적 관계: 일 자유의지와 관찮은 일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슬아, 표소희, 남보라, 이유영, 양은주 (2023). 관찮은 일 획득에서의 성별 차이: 한국 청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의 심리학 모형의 다집단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9(1), 101-123.
- 이재무, 조경서 (2022). 보육교사의 플로리시와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한 영향 관계에서 자기 주도 직무설계의 조절 효과 탐색.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2(5), 542-552.
- 이지은 (2020). 2020년 10월 고용/노동시장 동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3(4)
- 임정연, 윤지영 (2018).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내 직장여성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아시아 여성 연구, 57(1), 201-236.
- 장영숙 (2017). 유치원 교사의 행복감, 직무만족, 교사효능감 및 교수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 교과교육 연구, 17(23), 263-288.
- 장재윤, 유경, 서은국, 최인철 (2007). 일상 재구성법(DRM)을 통해 살펴본 남녀직장인과 주부의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123-139.
- 정경운 (2022).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역할과 정책 방향-ILO 주요 회원국 정책의 시사점.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3, 1-21.
- 정다빈 (2022). 관찮은 일(Decent Work)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상담 교육 연구, 5(1), 83-95.
- 정도범, 김병일 (2018). 여성 직장인의 개인 생활 및 직장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여성 연구, 99(4), 65-92.
- 정세기 (2021). 초심상담자의 사회계층, 소명 수행, 일 자유의지, 관찮은 일 그리고 삶의 만족과의 구조적 관계.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정은의, 노안영 (2007).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혼여성 행복간 관계: 개별성-관계성의 조절 효과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59-82.
- 최가희 (2021). 사회계층에 따른 군집유형: 우울, 불안, 정신적 웰빙, 대처 전략 및 심리상담 이용 경험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33(3), 1402-1427.

- 최윤지 (2022). 직장인의 사회계층과 일 자유의지가  
관찮은 일에 미치는 영향: 적극적 성격의 조절된  
매개효과.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허경민, 이기학 (2018). 대학생의 독립적자기관과  
진로낙관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율성과 지각  
된 외적 진로장벽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909-930.
- Butler, J., & Kern, M.L.(2016). *The PERMA-  
Profiler: A brief multidimensional measure of  
flourishing.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6(3), 1-48.
- Duffy, R. D., Autin, K. L., & Douglass, R. P.  
(2016). *Examining how aspects of vocational  
privilegerelate to living a calling.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1(4), 416-427.*
- England, J. W., Duffy, R. D., Gensmer, N. P.,  
Kim, H. J., buyukgoze-Kavas, A., & Larson-  
Konar, D.M(2020). *Women attaing decent  
work: The important role of workplace climate  
in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7(2), 251-264.*
- Hayes, Andrew F.(2018). *Introduction to media-  
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2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Hayes, A. F.(2013).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  
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 ILO(2013). *Report on Progress and Outcomes on  
the Monitoring and Measurement of Decent  
Work.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Geneva, 2(11).*
- Kim, H. J., Kim, S. Y. Duffy, r. D., Nguyen, N.  
P., & Wang, D.(2020). *A cross-cultural com-  
parison of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among U.S. and Korean colleagu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7(5),  
568-579.*
- Kraus, M. W., Piff, P. K., & Keltner, D.(2009).  
*Social class, sense of control, and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6), 992-1004.*
- Nam, J. S., Kim, S. Y.(2019). *Decent work in  
South Korea: Context,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15, Article 103309.
- Rantanen(2020). *Decent work, ILO's Response to  
the globalization of working life, Basic concept  
and global implementation with special refer-  
ence to occupational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rach and Public  
Health.*
- 투고일자: 2024. 8. 27.  
심사일자: 2024. 9. 24.  
게재확정일자: 2024. 10. 4.

# Apply of the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to Working Women from the Perspective of Flourishing

Su Hyung Yeo

HyunAh Kim

Seoul Cyber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flourishing grounded in the psychology of working theory(PWT). The mediating effects of work volition and flourishing were analyz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lass and decent work among working women. Additionally, a double mediating effect of work volition and flourishing was demonstrated. Subjective social class, objective social class, work volition, flourishing and decent work were surveyed in 205 women with more than three years of work experience. SPSS 29.0 and PROCESS Macro v4.2 were used for data analysis, and bootstrapping was used to test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s. The results showed that work voli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lass and decent work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ive or subjective social class and decent work. Flourishing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lass and decent work.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ive or subjective social class and decent work was also fully mediated. The path from social class to decent work was serial mediating by work volition and flourishing, which fully mediated the path between work volition and decent work. Finally, the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scope of the study as well a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Keywords:* The Psychology of Working Theory(PWT), working women, social class, decent work, work volition, flourishing